

# 개인무빙 보고서

지연우

## 한살림

이번 5학년 움직이는학교 과정에서 한살림이라는 곳에 6월7일부터 6월27일까지 3주일 동안 개인무빙을 진행했다. 한살림은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이라는 모토를 담고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이다.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지향하고 한살림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농약과 화학비료, 성장조정제(성장호르몬)같은 것들은 사용하지않고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물품들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품들을 뜻을 함께하는 한살림 조합원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친환경적인 생산과 판매가 계속해서 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외에 한살림에서 하는 활동들은 정말 다양하다. 각 지역마다 조합원분들이 운영하시는 소모임과 위원회가있는데 내가 했던 활동을 예로들면 한살림 식생활위원회라는 곳에서 친환경제품들로 간단하게 만들어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가르쳐주는 클래스를 열어 친환경제품, 한살림제품의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식습관과 한살림의 가치관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있다. 내가 한살림에 왔던 이유도 일반적인 생산방식이 아닌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들과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식들을 알려주고 실천하고있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한살림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았다. 일단 되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리고 2주일안에 개인무빙을 온거라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원래 원주한살림에서 하던 일들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되었다.

일단 처음으로는 매장업무를 하였다. 다른 마트들과 비슷하게 재고정리와 계산, 디피와 같은 활동들을 하였다. 하지만 기존 마트와 한살림 매장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매장의 물품이다. 위에 말했다시피 지구의 해로운 것들 전혀없이 만들어진 물품을 판매한다는 점이 다른 마트들과의 가장큰 차이점이고, 또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다.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은 일반 마트와같이 그냥 물품을 사러오시는 손님들이 아닌 모두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한살림의 조합원으로 활동중인 손님들이 구매하러 오신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하는 일들은 일반마트와 크게 다름없지만 한살림 매장이라는 곳은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을 담고있어서 더 열심히 근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공급, 지역모임, 놀봄같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신제품심의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신제품심의회는 한살림에 새롭게 출시될 제품들을 각 지역에 한살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본사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번에 운이 좋게 그 심의에 참관을 했는데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해서 편하게 했던 것 같다. 심의 제품으로는 우동국간장, 장국된장, 어린이카레, 10곡 식빵, 카카오별, 돼지양념불고기, 전복성게미역국, 알탕, 오징어김치전반죽등이 있었다. 조리해야 할 것들은 조리해서 먹고 과자같은 것들은 그냥 먹고 바로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평가하면서 먹어본 것이 처음이라 정말 미식가가 된 기분이었다. 원래 표현이나, 평가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음식을 평가하는게 되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위원회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보며 많이 배웠던 것 같다. 근데 한살림 특성상 맛과 건강까지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다보니 평가를

하다가 “아 이거는 이 제품을 썼으면 더 맛있었을텐데” 와 같은 생각이 자꾸들어서 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가끔씩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세번째로 인상깊었던 활동은 조합원분들이나 이사회분들이 회의 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보고 배웠다. 회의하실때마다 참관해서 보았었는데 회의가 정말 길었었는데도 다들 집중을 잃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회의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많이 보고배운 것 같다. 그리고 또 인상깊었던 점은 회의를 통해서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인데 이 곳에서는 소비자분들이 한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이 신기했다.

네번째로 인상깊었던 활동은 요리교실이 아주 재미있으면서 가장 유익했던 시간 이었던 것 같다. 원주한살림 식생활위원회에서 주최한 활동이었는데 조합원 분들이든 비조합원 분들이든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이었다. 이 교실을 한번 들으면 비조합원 분들도 조합원으로 들어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다. 요리 주제는 차지키소스샌드위치, 토마토브루스케타라는 음식을 친환경재료들로 만드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 하나하나 재료 손질을 하며 음식을 완성을 했다. 하다보니 싫어하던 채소들도 되게 맛있어보이고 실제로도 원래 오이를 잘 못먹었는데 이제는 잘 먹을 수 있게 된게 가장 큰 성취인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음식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번 3주동안 한살림에 근무 하면서 나를 다시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음식을 남기고 버렸던 것, 바닥에 쓰레기를 버렸던 것, 덥지않은데 에어컨을 키고 있었던거와 같은 기억들이 스쳐가면서 이렇게 환경에 힘써주시는 분들을 보며 자책하는 계기도 되었다. 많은걸 보고 배운만큼 실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살림에 조합원으로 많이 유입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했다. 너무 즐거웠고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건강한 식습관과

안전한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7 (1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 사무국	도움주신 분들	이희영님, 품질 관리 위원회분들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은 품질 관리 위원회분들하고 이희영 실무자님과 같이 한 살림에서 새로 출시될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조리해서 먹어보고, 그 제품을 그대로 출시해도 괜찮은지 심의를 거치는 활동을 하였다.</p>		
특이사항			
소감	<p>원래 먹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렇게 맛을 평가하면서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한 살림 특성상 맛과 건강까지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다보니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평가를 하다가도 막히는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가끔씩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심의를 할 제품들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 음식만 9개라서 정말 먹다가 지친다는 느낌을 처음 받아보았다. 정말 의미있는 하루였고 또 처음 보는 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내일은 한 살림(무실)매장에서 하는 일들을 배운다.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8 (2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무실)매장	도움주신 분들	한 살림 매장 직원분들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은 한 살림(무실)매장에서 하는 일들을 배웠다. 처음에 재고정리를 하고 당일 들어온 재고가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하고 청소를 했다. 그리고 10시에 가게 오픈을 하고 손님들이 물품들을 구매하실 때 마다 빈자리에 계속 물품들을 채워 넣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였고 카운터에서 계산 도와드리는 일도 하였다.</p>		
특이사항			
소감	<p style="text-align: center;">정말 힘들었다.. 하루 종일 쉬는시간 없이 계속 일어나서 물품 채워넣고 카운터보고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동시에 온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순하지만 가장 힘든 것 같다. 그래도 이런 힘들음을 견디려 온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좋았던 건 한 살림 매장은 소비자분들과 굉장히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느꼈다. 전부 한 살림 조합원분들이 구매하시러 오는 것이라서 물품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교육과정으로 이런 활동들 하러 왔다고 하니 따뜻하게 힘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내일은 조합원분들이 구매하신 물품들을 직접 집으로 공급해드리러 가는 일을 한다.</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9 (3일차) 9:00 ~ 6:00
장소	원주 외곽	도움주신 분들	장석원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은 아침 9시에 원주 한 살림(농품)매장에 가서 공급할 물품들을 공급 차에 넣고 원주 외곽에 있는 곳들을 돌며 조합원분들이 주문하신 물품들을 공급하였다.</p>		
특이사항			
소감	<p style="text-align: center;">하루 종일 차에서 여러 곳을 돌며 공급을 하니 피로가 쏟아졌던 것 같다. 돌이켜 하기에 참 애매한 일들이 많아서 대부분 옆에서 지켜보거나 택배가 많으면 조금 들어드리거나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다 처음 하는 일들이다 보니 여러 가지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내일은 원주시내 쪽에 계신 거주하고 계신 조합원분들과 횡성에 계신 조합원분들 물품을 공급한다.</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10 (4일차) 9:00 ~ 6:00
장소	원주시내, 횡성	도움주신 분들	장석원, 횡성매장 팀장님
활동내용	<p>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차로 이동하며 조합원분들이 주문하신 물품들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횡성에 있는 매장에도 가보았다.</p>		
특이사항			
소감	<p>오늘은 공급2번째 날인데 그래도 적응이 되는 것이 신기했다.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또 오늘은 횡성까지 가서 공급을 해서 그곳에 있는 한 살림매장에 가서 팀장님과 얘기를 나누었다. 근데 팀장님이 대학생 때부터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양희창선생님의 누나분인 양희교선생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셔서 되게 신기했다. 그렇게 대안교육의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다음 활동은 한 살림(무실)매장에서 근무한다.</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13 (5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무실)매장	도움주신 분들	한 살림 매장 직원분들
활동내용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매장 일을 하였다.		
특이사항			
소감	<p>저번 주에 했던 일과 다 똑같고 시간도 다 똑같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점점 적응하면서 능숙해지는 것이 부듯했다. 처음엔 버벅거리던 계산도 깔끔하게 해냈을 때 기분이 좋았고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내일도 한 살림(무실)매장에서 근무한다.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6/14 (6일차)
		활동시간	9:00 ~ 6:00
장소	한 살림(무실)매장	도움주신 분들	한 살림 매장 직원분들
활동내용	오늘 특별한 일은 없었고 어제와 동일하게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특이사항			
소감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직원 분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 적응이 다되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내일은 오전에 조합원분들이랑 줌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한 살림에서 진행하는 놀봄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15 (7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 사무국	도움주신 분들	이희영 실무자님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전에는 한 살림 조합원분들이랑 원주한살림 이사장님이랑 회의를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한 살림에서 진행하는 놀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친환경음식들을 알려주고 다 같이 샌드위치도 만들어먹었다.</p>		
특이사항			
소감	<p style="text-align: center;">회의를 보며 느꼈던 생각은 한 살림은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소통이 잘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인데 여기서는 소비자분들이 한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적극반영 된다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오후에 했던 놀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친환경 음식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놀라웠다. 그러면서 나도 공부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내일은 한 살림 식생활 위원회에서 하는 요리교실을 한다.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16 (8일차) 11:00 ~ 8:00
장소	한 살림(심평원)매장	도움주신 분들	정미선님, 김미연님, 이희영 실무자님
활동내용	<p>오늘은 원주한살림 식생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친환경요리교실이 있는 날이라 아침에 출근해서 위원회분들과 요리교실에서 쓸 기구들이랑 음식재료들을 챙겨서 원주한살림(심평원)매장에 갔다. 그리고 기구들이랑 음식들을 전부 세팅한 후에 요리교실을 신청한분들과 차지키소스샌드위치, 토마토브루스케타라는 식사대용으로 먹기 좋은 음식들을 같이 배워보았다.</p>		
특이사항			
소감	<p>여러 가지 친환경재료들로 만든 제품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친환경음식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하시는 식생활 위원회분들이 마치 재즈를 알리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ㅎㅎ</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내일은 오전에 조합원분들이 하시는 소모임에 대표분들이랑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조합원분들께 진행할 설문조사지를 다 같이 수정하는 시간을 가진다.</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17 (9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 사무국	도움주신 분들	이희영 실무자님, 소모임대표분들
활동내용	<p>오전에는 조합원분들이 하시는 소모임에 대표분들이랑 회의를 하였다. 회의 내용으로는 소모임 활동 브리핑이 있었고 다 같이 부족한 점이나 했으면 좋겠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조합원분들께 진행할 설문조사지를 다 같이 수정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p>		
특이사항			
소감	<p>이렇게 진짜 일터에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 자기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많이 배웠고 앞으로 회의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활동은 한 살림(중앙)매장에 가서 근무한다.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20 (10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중앙)매장	도움주신 분들	중앙매장 직원분들
활동내용	<p>오늘은 한살림 중앙매장에서 20%세일과 구매후에 집까지 배송을 하는 이벤트를 해서 조합원분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카운터일과 디피를 실새없이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에 구매를 하시고 배송을 요청하신 분들의 집에 공급을 하러갔다.</p>		
특이사항			
소감	<p>확실히 이벤트를 하니깐 사람들이 쉬지 않고 와서 더 재미있었다. 손님들이 없으면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한데 손님들이 많으니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재미있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내일은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한다,</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21 (11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 사무국	도움주신 분들	하종우 사무국장님, 이사회분들
활동내용	오늘은 이사회를 하였다. 안건 몇 가지를 다루며 하루 내내 회의를 하였다.		
특이사항			
소감	<p style="text-align: center;">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회의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언도 많아서 신기했다. 1,2명 정도는 의견을 별로 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그런 분이 한명도 없었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는 것이 느껴져서 나도 회의에서 발언을 할 땐 저렇게 해야 상대방이 내 얘기에 집중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내일은 횡성매장에서 지역모임을 한다.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22 (12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횡성)매장	도움주신 분들	조합원분들
활동내용	<p>오늘은 조합원분들 중에 직업이 의사인분이 계셔서 그분이 세포의 대한 강의를 소모임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한살림 횡성매장へ가서 세포의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몸이 식습관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야기를 들었다.</p>		
특이사항			
소감	<p>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강의였던 것 같다. 강의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야한다는 인식은 확실히 머리에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한살림에서 이러한 소모임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내일은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고니골농장에서 오디따기와 누에라는 벌레를 본다.</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23 (13일차) 9:00 ~ 6:00
장소	원주 고니골농장	도움주신 분들	이희영 실무자님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은 원주에 고니골농장이라는 곳에 가서 조합원분들과 같이 오디따기 체험과 누에라는 유충의 대한 강의와 또 엄청 큰 누에 공장에 가서 사장님에게 누에 공장을 하시게 된 계기를 들었다.</p>		
특이사항			
소감	<p style="text-align: center;">오디따기 같은 활동들은 1학년 무빙때 많이 했었는데 따다보니 1학년때 생각이 많이 났다. 그리고 누에라는 유충도 보고왔는데 굉장히 애벌레랑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있었다. 그 조그마한 유충들이 만들어내는 실이 굉장히 뚝뚝해서 놀랐기도했는데 벌레를 무서워하는 나에게는 많이 힘들었던 체험이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내일은 한 살림(단계)매장에서 근무한다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24 (14일차) 9:00 ~ 6:00
장소	한 살림(단계)매장	도움주신 분들	단계매장 직원분들
활동내용	<p>오늘은 원주단계매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다른 매장에서 했던 것처럼 9시에 가서 재고정리하고 청소하고 손님들 계산해드리는 일들을 하였다.</p>		
특이사항			
소감	<p>오늘 단계매장을 마지막으로 원주에 있는 모든 한 살림 매장을 다 방문해봐서 좋았다. 전부 제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다음활동은 품질관리 위원회 분들하고 이희영 실무자님과 함께 한 살림에 납품할 제품을 만드는 곳에 가서 위생을 검사하러 간다.</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지연우	날짜 활동시간	6/27 (15일차) 9:00 ~ 6:00
장소	원주 신림	도움주신 분들	품질관리 위원회분들, 이희영실무자님
활동내용	<p>이번에 한살림에서 새로운 막걸리를 판매하는데 그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그 시설의 위생을 검사하러 품질관리 위원회분들과 함께 원주 신림 쪽에 있는 공장에 갔다.</p>		
특이사항			
소감	<p>오늘을 마지막으로 개인무빙이 끝이 났는데 3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던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살림에 가입해서 환경을 위해 힘을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